

농한기에 ‘슬쩍’... 폐감귤·나무 무단투기 ‘눈살’

수확철 끝나 밭길 뜯혀진 틈타 투기 비일비재 5t 미만 폐기물은 행정 권한 밖... 토지주 부담 “몇달 밭에 안 갔더니 영문 모를 쓰레기 한가득”

사람들의 밭길이 뜯혀지는 농한기를 틈타 도내 농지 곳곳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없는 외곽지에서 투기가 벌어져 배출자를 찾기 힘들뿐더러 5t 미만의 폐기물은 토지주가 직접 처리해야 해 농민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A(60대)씨는 지난달 자신의 밭에서 버려진 폐나무를 발견했다.

A씨는 “두 달간 밭에 안 가다가 슬슬 농사 준비를 하려고 방문해보니 나무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

다”며 “너무 황당해서 읍사무소에 신고했더니 양이 작으니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트럭으로 폐나무를 몇 차례에 걸쳐 인근 폐기물 처리센터로 직접 옮겨야 했다.

또 다른 농민 B(50대)씨는 자신의 밭에 누군가가 폐나무와 썩은 감귤을 무더기로 버렸다고 토로했다.

B씨 역시 행정당국에 문의했지만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해 폐감귤을 직접 폐기했다. 폐나무의 경우는 동네를 수소분해 배출자를 직접 찾은 뒤 동주민센터를 통해 처리를 요청했다.

이처럼 농한기에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이 소량일 경우 토지주가 직접 배출자를 찾거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4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5t 미만의 폐기물은 농지에 무단투기되더라도 행정에서 배출자를 찾거나 대신 처리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농지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t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5t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은 자진 처리가 원칙이며, 5t 이상 사업장 폐기물은 행정당국에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사에서 배출자를 추적한 뒤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올해 1~2월 농지 무단투기가 적

발돼 검토 중인 사례는 서귀포시 2건이다. 제주시에는 접수된 신고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위 사례들과 같이 소량의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질 경우 토지주들은 사비와 시간을 들여 폐기 처분해야 하는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농민 A씨는 “적은 양이라도 밭에 남의 쓰레기가 있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어르신들 밭에 이런 투기가 발생하면 처리도 곤란하고 농사도 힘들어지게 되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와 시민의식 함양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말까지 폐감귤류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우도 목선서 ‘노동신문’ 추정 종이 발견 유관기관 ‘대공 혐의점’ 등 합동조사 진행

우도 해안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목선에서 북한 노동신문으로 추정되는 종이와 유관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목선이 발견됐다는 주민의 신고가 해경으로 접수됐다.

또 목선에서는 북한 중앙일간지인 ‘노동신문’으로 추정되는 신문이 목선 틈 사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문이 찢겨 있는 등 형태가 많이 훼손돼 발간 일자 등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풍랑주의보가 심하던 3·1절 연휴에 선박이 떠밀려온 것 같다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최초 접수한 해경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국가정보원, 군 당국과 함께 대공 혐의점 등에 대해 합동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목선은 길이 약 4m, 폭 1m 크기로 선체에 구멍이 뚫리는 등 많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에서 세 차례 발견된 목선과 마찬가지로 엔진이 없는 무동력 선박이다.

양유리기자

70대 노인 집 침입해 현금 뺏은 40대 구속

밤 시간대 70대 노인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뺏은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 서귀

포시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70대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8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양유리기자

전자감독 대상자 3년 동종 재범률 0%

제주보호관찰소, 밀착 지도·감독 효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제주지역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 등 엄정 대응으로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전자감독 대상자 동종 재범률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교도소를 방문하여 출소 후 귀주여건, 심리상담,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1:1 배치하고 24시간 대상자를 밀착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위험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남·56세)는 강간미수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를 인지한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직원에게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되어 징역형 실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전자감독 제도 도입 전 5년 평균 전국 재범률은 14.1% 였으나, 작년 전국 평균 재범률은 0.72%로 하락했다.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 성범죄 재범이 단 한 건도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제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는 총 42건이고,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26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5명은 상습적으로 음주제한이나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양유리기자

“건기 좋은 제주를 위해”

제주환경단체, 기후정책 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직접 선정한 13대 기후정책이 발표됐다. 20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지난달 27일 열린 ‘2026 기후 전망과 전략: 지역과의 대화-제주’ 포럼에서 13대 기후정책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책을 아우르는 4개의 대주제는 ▷이동권: 토건 중심에서 보행·대중교통 중심으로의 대전환 ▷에너지 전환: 공공성과 수요관리의 동시 확보 ▷수거 및 돌봄: 기후 불평등 해소 ▷농업·먹거리·생태: 지역 순환 구조 구축 등이다.

김경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실행위원장은 “이번에 도출된 13대 정책은 도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한 ‘민’의 ‘그 자체’라며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후보들이 정책들을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들 4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바다환경지킴이들이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주민투표 안돼... 제2공항 조속 추진하라”

제2공항추진위 어제 기자회견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가 조속한 건설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4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제주제2공항은 2015년 정부의 건설 발표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한 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며 “그 사이 제주공항은 계속

포화상태로 운영돼 항공기 지연과 혼잡은 일상이 됐고, 기상 악화 시 대규모 결항과 회항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항이 개항되면 항공 안전은 강화되고 과밀이 해소되며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제주도가 국가 전략적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양유리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 3cm + 5.5mm = 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 **010-4450-4316**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